

강진 작천 '제3회 코끼리마늘꽃 3 Days' 12일 개막

무안군, '사랑의 헌혈' 행사 성료

매년 6월이 되면 보랏빛 꽃밭이 장관을 이루는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끼리마늘꽃 군락지를 배경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운영된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보랏빛 코끼리마늘꽃이 끝없이 펼쳐진 장관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여기에 해바라기와 벼들마편초, 나비바늘꽃 등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초여름 정원을 연상케 하며, 곳곳에 조성된 포토존은 함께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꽃 감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갈릭피자 만들기 체험과 꽃바구니 만들기 체

험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코끼리마늘꽃과 커피가루를 활용해 만드는 꽃바구니 체험은 자연의 향기와 감성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행사장 중앙 광장에 마련된 물놀이 공간은 초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특별한 쉼터가 될 전망이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되어 축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먹거리와 살거리도 풍성하다. 행사장에서는 닭개장과 냉공국수 등 지역 특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옥수수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을장터도 운영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부흥마을에서 생산한 코끼리마늘과 카무트, 팥 등 농산품도 판매된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에서 열리는 코끼리마늘꽃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은 지난 5월 2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무안군청과 무안군보건소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건강 상태 문진과 기본 혈액검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군은 원활한 행사 운영과 참여자 안전을 위해 현장 안내와 지원에 힘썼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혈액 보유량 감소가 우려되는 시기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혈액 확보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정기 단체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관·단체와 협력해 군민 참여 확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민재 기자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인 "시민의 시장 되겠다"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목포시장 후보가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민선 9기 목포시장에 당선되며 새로운 목포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강 당선인은 4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선거는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멈춰선 목포를 다시 뛰게 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며 "시민의 시장으로서 목포 대전환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선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38년 동안 시민 곁을 지켜

온 지역 정치인의 진정성과 역량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당선인은 1987년 목포에 정착해 달성동 공방방 운영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9세에 목포시의원에 당선된 뒤 시의원 3선, 전남도의원 2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등을 역임하며 38년 동안 목포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문수 기자

함평군 함평읍, 집중호우 대비 우수·배수관로 집중 점검 실시

전남 함평군 함평읍이 최근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가지 우수·배수관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5월 한 달간 읍내 우수·배수관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퇴적물이 쌓인 구간을 중심으로 준설 작업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5월 한 달간 함평읍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14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큰 피해를 겪은 읍전통시장 일대를 포함해 7개소(약 4.3km)를 대상으로 퇴적물 준설 장비를 동원해 우수·배수관로를 깨끗하게 정비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작업 현황과 준설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사항도 세심하게 점검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준비를 실시했다"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통합돌봄 '방문약물관리 사업' 본격 추진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이 약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해 영암군약사회와 협력해 통합돌봄 '방문약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약사가 직접 찾아가 복용 상태를 점검

하고 중복 약물 확인, 부작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암군약사회 소속 권역별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가구를 방문해 복용 상담을 진행했다.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먹는 약이 많아 헷갈렸는데 약사가 직접 찾아와 설명해 주고 정리해 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미진 영암군약사회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용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해 통합돌봄 건강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쥐노래미 18만 마리 방류

신안군은 최근 다이아몬드 해역 내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쥐노래미 18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쥐노래미는 전장 5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선상 방류를 실시했다.

이번 방류 해역은 22년부터 5년간 50억 원(연간 10억)이 투입되고 있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인 해역으로, 지금까지 어초(593개) 투하와, 종자방류(55만 마리), 해조류(곰피, 다시마 등)를 집중 이식해 놓은 해역이다.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은 올해 마지막 5년 차로 오는 7월 중 추가적인 종자 방류(21만마)와 함께 조성지구 내 어획조사, 환경개선(폐기물 수거)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